

독해 요령

1. 명사 다음에 ‘어떤?’ 하면서 읽어 나갑니다. 타동사 뒤에서 ‘뭐가 뭐(라고/하게/하는 것을)?’ 하면서 읽어 나갑니다. [안남철](#) 절대독해법
2. 부사절, 전치사구, 부사를 괄호 치고 읽어 봅니다.
3. 한마디로 ‘뭐가 어쨌다고?’ 하면서, 주어와 술어를 파악하고 추론하면서 읽습니다. [한마디로닷컴](#)

독해를 연습할 때나 독해가 잘 되지 않을 때 이런 요령을 적용합니다. 실제로 책을 읽을 때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구문이 보이면, 아는 내용이면, 독해 요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번역은 물론이고 해석도 하려 들지 않습니다.

독해 :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하기

해석 : 단어나 구절의 뜻을 우리말로 생각하거나 표현하기

번역 : 한국식 어순으로 문장 만들기

명사

명사는 흔히 그 명사를 수식하는 말이 붙어서 명사 덩어리로 나옵니다. 명사에 수식어가 붙고 붙어서, 수식어 속 명사에 또 수식어가 붙어서, 길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보통은 명사 다음에서 ‘어떤?’ 하면서 읽어 나갑니다.

Mark’s work with them reflects his awareness that diversity in approach is a natural response to a clientele so distinct in lifestyle, personality, and aspirations as to defy the deficiencies implied in the categories by which they are grouped.

awareness를 동격의 that절이 수식하고, clientele을 (who/that is) so 이하의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절이 수식하고, deficiencies를 (which are) implied 이하가 수식하고, categories를 by which 이하가 수식합니다.

1. 명사 + 관계사절

1) 명사 + (전치사+) 관계사 + 주어 + 동사...

the person with whom you are working

2) 명사 + 주어 + 동사...

the range of genuine options they have

3) 명사 + 관계대명사 + 동사...

social workers who seek to empower clients

4) 명사 + 복수의 관계대명사절

the resources that clients currently have that they can use

5) 명사 + (관계대명사) + 삽입절 + ~

I’d like to hear the things you think are most important.

2. 명사 + 부정사구, 현재분사구, 과거분사구, 전치사구, 형용사구
= 관계사와 be동사가 생략된 관계사절

1) 명사 + 부정사구 : (미래·필요 느낌으로) ~할, ~(해야) 하는
Strategies to use and actions to take to meet objectives

2) 명사 + 현재분사구: (능동·진행 느낌으로) ~하는/~하는 중인
questions beginning with *why*

3) 명사 + 과거분사구 : (수동·완료 느낌으로) ~된/~한
a client recently paroled and looking for employment

4) 전치사구
complex lives with no easy answers

5) 형용사구
the skills necessary to access the client's cultural expertise

3. 수식어 + 명사

‘관사·소유격·this·that + (부사) + 형용사 + (명사) + 명사’ 형태의 명사어가 되기도 합니다. 관사나 소유격 또는 this나 that을 만나면 명사까지 쪽이어서 한 덩어리처럼 읽습니다. an empowerment-based approach

4. 명사 + of + 명사

1) 소유격 : the hallmark of empowerment

2) 주격 : the presence of options and resources

3) 목적격 : an assessment of strengths and resources

4) 동격 : the notion of collaborative partnership with clients

5) A of B : A의 B

an appropriate level of personal sharing and self-disclosure

5. ‘명사+관계사절’ 독해 대안

1) ‘명사 + 관계사절’ 덩어리가 문장의 목적어나 보어일 때

명사 뒤에서 잠깐 멈추고, 새로운 문장이 시작하는 것처럼 읽어 나갑니다.

명사 뒤에서 잠깐 쉬고, 관계대명사를 ‘그것이 또는 그것은(그 명사가 또는 그 명사는), 그것을(그 명사를), 그것의(그 명사의)’ 따위로 바꾸어 읽는다. 관계 부사는 ‘거기서, 그렇게, 그때, 그래서’ 따위로 바꾸어 읽습니다.

Our values, backgrounds, and cultural identities serve as filters through which we see, interpret, and respond to events.

They met in graduate school when they were members of a lesbian activist group.

2) ‘명사 + 관계사절’ 덩어리가 문장의 주어일 때

명사 다음에 잠깐 멈추고, 관계사절 뒤에서 잠깐 멈추고, 본동사를 읽습니다. 해석은 관계사절을 조건(때), 양보 등의 부사절처럼 해석합니다.

명사는(명사가) +

① 조건 : ~이면/~일 때, ~하면/~할 때

Social workers who fall prey to this invitation to be experts find themselves trapped by the dependencies they create in clients.

Social workers who take on leaderships roles in such collaborations need skills to facilitate meetings effectively.

② 양보, 양태 : ~여도/~이라고/~이지만/~이면서도, ~해도/~한다고/~하지만/~하면서도 ※ 뒤에 부정어가 올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Social workers who focus on strengths do not ignore the difficulties that clients bring.

Someone who feels powerless is not empty of resources.

동사

1. 동사 찾기

부사어나 주어가 길어지더라도 술어(동사)를 예상하며 읽습니다.

What social workers truly feel and sincerely believe about themselves and about clients emerges in social work interactions.

Observing who initiates conversations, who contributes the most, who has the last word, and toward whom members look when it's time to respond discloses clues about who's in charge.

2. 뭐가 뭐~

동사 뒤에 '목적어 + 목적격보어'가 나오는 문장이 많습니다.

어떤 동사 뒤에 목적어와 목적격보어가 오곤 하는지, 자주 보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타동사 뒤에 '목적어+목적격보어'가 있겠다 싶으면 '뭐가 뭐(라고/하게/하는 것을)?' 하면서 읽어 나갑니다.

Practitioners encourage clients to become full partners.

Some administrators consider written communication skills a top priority in their list of qualifications for prospective employees.

3. 완료동사

- ① have + pp : ~한/~된 상태이다
- ② may have pp ~한 상태일지 모른다. → ~했을지 모른다.
- ③ must have pp ~한 상태여야 한다. → ~했음이 틀림없다.
- ④ should have pp ~한 상태여야 했다. →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
- ⑤ had + pp : ~한/~된 상태였다.
- ⑥ will have + pp : ~한/~된 상태일 것이다.

4. 미래형 현재

will이 습관(곤잘 ~하다, 흔히 ~하다), 습성/경향(~하게 마련이다), 고집/주장을 뜻할 때는 미래로 읽지 않고 ‘현재’로 읽습니다.

Social workers will first list their clients' goals and then describe what strengths their clients have to achieve them.

It is inevitable in social work that demand will outstrip supply much of the time.

It is ironic that some social workers who are rightly keen not to be judgemental towards clients will readily allow themselves to be judgemental towards fellow professionals.

5. 분사구문

종속절의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ing로 바꾼 구문입니다. 동사가 be동사인 경우, being/having been까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거나 문맥상 명백한 경우에 이렇게 생략하곤 합니다. 때/조건/양보/이유의 접속사를 남겨 두기도 합니다.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의 목적어나 보어 또는 주절 전체인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다음과 같이 독해해 봅니다.

잘 통하지 않으면 생략된 접속사와 주어 등을 유추하여 독해합니다.

1) ‘분사구문, S+V’이고 분사구문의 앞부분이

① ~ing이면 : ~하는 S는 V한다. / ~해서(또는 하면, 할 때) S는 V한다.

Seeking to empower clients, social workers look beyond the harm that oppression may have caused to applaud the strengths that these same clients have brought to bear in handling injustice.

② p.p.이면 : ~되는 S는 V한다. / ~되어서(또는 되면, 될 때) S는 V한다.

(When) Developed as a partnership, the social worker-client relationship itself becomes an empowering resource for change.

③ 형용사이면 : ~ㄴ S는 V한다. / ~해서(또는 하면, 할 때) S는 V한다.

Universally applicable to clients at all social system levels, the discovery phase includes identifying strengths, assessing resource capabilities, and framing solutions.

④ 명사이면 : ~인 S는 V한다. / ~이어서 S는 V한다.

Experienced experts, they know how to do it.

2) 'S+V, 분사구문' 이고 분사구문의 앞부분이

① ~ing이면 : S는 V한다, 그리고/그래서 (또는 그러면, 그럴 때) ~한다.

② p.p.이면 : S는 V한다. ~되어서

잘 통하지 않으면 생략된 접속사와 주어 등을 유추하여 독해합니다.

An empowerment-based approach to social work practice moves clients to center stage - positioning them as the authors of their stories as well as the directors and producers of the action.

Clients go on, empowered to incorporate what they have learned into how they continue to cope.

Practitioners should avoid deducing too much about clients simply by viewing background information, knowing that individual members of any cultural group have distinctive stories to tell. → knowing = because they know

It resonates with Kelly Moran when Professor Arcane says, "social workers are not so much professionally educated as they are naturally developed, born and bred by families who need social workers." → if/when they are born and bred

3) 혼합

Also limiting clients' autonomy, maternalism evolves from a worker's good intentions gone awry, leading to unintentional control as expressed through overpowering caring behaviors.

6. with 분사구문 부대상황 : S+V, with S2 + V2(~ing)

이때 with의 의미는 '그와 함께' 내지 '그에 따라' 줌 됩니다. → S가 V한다, '그와 함께/그에 따라' S2가 V2한다.

Professional practice requires cultural humility(,) with social workers honoring clients' expertise, freeing clients to assert their culturally based identities and ideas.

7. V6

Roy's V6	과거	현재	미래
동사	~했다.	~한다.	~할 것이다.
형용사	과거분사 ~ed ~한/~된·진	현재분사 ~ing ~하는/~하는 중인	to부정사 ~할
명사	~한(하던) 것 동명사 ~ing	~하는 것 동명사, to부정사	~할(하려는) 것 to부정사

be동사 : 이다, 있다. / have : 상태이다

기타

1. end-weight 원칙 : 무거운 정보는 뒤로 배치하곤 합니다.
2. the 비교급 ~, the 비교급 ... : ~할수록 더 ...하다
이 구문에서 앞 절이든 뒷 절이든 be 동사는 생략할 수 있고, 뒷 절에서는 주어와 동사를 도치할 수 있습니다.
3. 비교구문의 than/as : 뒤에 이어질 주어/동사/목적어/보어 등이 앞 절에 나온 그것과 같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than/as 뒤에 나오는 절의 주어와 동사를 쉽게 짐작할 수 있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be + 동사 원형 : 일반 동사 do가 쓰인 관계사절의 선행사가 all, the only thing, the first thing, the least thing일 때
5. 두 개의 to 부정사를 and/or/but/except/rather than/as well as 등의 접속사로 나란히 연결할 때 뒤의 to 부정사는 to를 생략하곤 합니다.
6. 선행사를 포함한 who(whom)
the person who(whom) ~ 에서 the person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주절의 동사가 제안(advise/recommend/suggest), 주장(insist, urge), 요구(demand/request/ask), 명령(command/order)을 뜻하는 동사일 때, 종속절인 that절에 동사 원형을 쓰곤 합니다.
8.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 동명사구가 문장의 주어 또는 주격 보어이면 소유격으로 표시합니다.
9.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 'for + 목적격'으로 표시합니다.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와 같을 때, 불특정 일반인일 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앞의 보어 자리에 성격, 성향을 뜻하는 형용사가 오면 'of + 목적격'으로 표시합니다.
10. 시간, 조건의 부사절의 현재 시제는 미래를 뜻할 수 있습니다.
11. be + to 부정사 : 예정, 의무, 운명, 가능, 의도

앞에서 뒤로 순해

1. 본동사를 수단·방법 부사로, 뒤의 동사나 전치사를 본동사로

The ecosystems perspective examines the interplay of human systems with their environment both to understand what is happening and to develop strategies for initiating change.

→ examine하여 understand하고 develop한다

2. S + A before B : A를 한 후에 B를 한다.

S + A after B : A를 하기 전에 B를 한다.

To keep pace with client readiness, social workers directly acknowledge the significance of problems before tilting the conversation toward strengths.

※ A나 B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길~때 유용합니다. A나 B가 한눈에 보일 때는 이런 독해 요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독해가 익숙해지면 역시 이런 요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뉘앙스가 있으니 더욱 그러합니다. S + A before B : A를 한 후에 B를 하지 않을 수 있고, S + A after B : 'A를 하기 전에 B를 한다.'와 'B를 한 후에 A를 한다.'는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It takes 시간·돈·노력... + to~ : 시간·돈·노력이 있어야 ~할 수 있다.

※ to 이하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길~때 유용합니다. 한눈에 보일 때는 이런 독해 요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뉘앙스가 있으니 더욱 그러합니다.

4. S + V when ~ : S가 V한다, 그때 ~

They met in graduate school when they were members of a lesbian activist group.

S가 V하는 때는 ~할 때이다. S가 V하려면 ~해야 한다.

According to Berlin "our attempts to assist the client to undertake positive change are most likely to be effective when the client

feels both cared for and recognized as a free agent."

5. 주어 + 동사 because ~ : 주어가 동사한다, (그것은) ~때문이다.

6. A shows/indicates/suggests/found/discovered that ~ : A에 의하면 ~

7. S + V + O (이 구조가 한눈에 보이고 O가 길~때) : S가 V하는 것은 O다.

8. S + V + O + OC (이 구조가 한눈에 보이고 OC가 길~때) : S가 O에게 V하는 것은 OC하는 것이다. / S가 V하는 것은 O가 OC하는 것이다.

9. 주어 + 동사 ~, leaving A ~ : 주어가 동사한다. 그래서 A가 ~하게 만든다. → 그래서/그 결과로 A가 ~하게 된다.

10. A lead to B (이 구조가 한눈에 보이고 B가 길~때) : A에 따라오는 것은 B다. A 하면(해야/할 때) B하게 된다(B에 이르게 된다)

11. A lead/guide B to C (이 구조가 한눈에 보이고 C가 길~때) : A에 따라 B가 C한다. A하면(해야/하여/할 때) B가 C하게 된다.

12. A is characterized by B : A의 특징은 B다. A하는데(A인데), 그 특징은 B다.

13. should, have to, must, need to... + to부정사 = '...해야 ~할 수 있다'

14. don't have to, don't need to... + to부정사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